

<헌법의 아름다움>

<우리 연합 주 국민들은 더 완 벽한 결합을 추구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정을 확보하고 공동의 방위를 대 비하며 전체의 복지를 촉진하고 자유의 축복을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확립하기 위 해 이 미국의 헌법을 제정한다.>

1787년 9월에 제정된 미국 헌법 중 내 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위의 머리말인데 그 중 “자유의 축복을 우리와 다음 세 대에게 확립하기 위해”라는 구절이 가장 와 닿는다.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이 얼 마나 큰 사회적인 실험이였는지는 이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다.

영국과의 식민지 전쟁을 승리 로 이끌고, **군주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다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, 다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주나 독재정치의 압제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든 헌법이다.**

미국 전에는 이러한 식의 헌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. 이 헌법은 그 전에 유럽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많 은 농민반란을 주도한 사람들과 새로운 사회 구조에 대한 글을 쓴 지식인들의 피 흘린 결과였다. 이 헌법 때문에 지구상의 인류가 그래도 이 정도 인간 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.

한국이 아직도 정치적으로 미 숙한 점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대다수가 위의 헌법을 창조한 사람들과 달리 헌법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. 우리도 우리 힘으로 독재정권 을 쫓아냈고 우리도 헌법이 있는 엄연한 법치주의 민주국가이지만 뭔가 조금 모자 랐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?

느닷없는 풍습헌법을 도입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헌법재판관들 같은 권력자들 때문일까? 아니면 법률적인 방법보다는 윗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유교 사상 때문일까?

솔직히 모르겠다 . 나보다는 더 훌륭한 분의 분석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다. 다만 나는 마음속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양 어느 나라에 못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다.

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개성이 강하고 누구 못지않게 자유를 원한다고 믿기 때문이다. 그동안 낯설었던 법치주의의 개념들을 서서히 받아 흡수하면,

1700년 말부터 이어왔던 민주주의의 정신을 받아, **지난 독재 정권과 저항했던 우리의 역사가 세계 역사 의 한 흐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.**

한국이 세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는 한류의 열풍이 보여주듯, 우리 문화의 그 어느 부분은 인류 누구에게나 어필한다는 것이다. 우리가 중요시하고 지켜냈던 그 무엇이 세계적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. 그것을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발달시켜 세계 문화의 선두 주자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.

우리만의 그 무엇을 세계 인류에게 나눠주는 것이다. 인류를 이끄는 것은 이제 군사력이 아니다 . **인류문명을 끌고가는 것은 결국 전체 인류의 지지에 의해 결정된 하나의 모랄이다.** 우리에게는 바로 그같은 잠재된 모랄이 있다 .

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이 그 어느 나라도 앞서가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혁명적인 테크놀로지 때문이다 . 민주주의 라는 개념은 개념 자체에 핸디캡이 있는 사상이었는데, **그것은 바로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의 뜻을 정부 차원 하나하나의 결정에 반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.**

민주국가라 부르는 여러나라 중 스위스는 일년에 몇 차례 중요사항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.

민주정신을 가장 소중히 하는 나라다. 그렇지만 그 막중한 비용은 국민 참여를 원치않는 다른 나라의 권력자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이유가 된다.

인터넷은 이 고리를 단 한번 에 풀 수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. 정부의 결정권이라도 시민 모두가 그때 그때마다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. 이렇게 하면 전문 정치인들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.

인터넷 정치는 지금도 가능하다.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뿐이지 기술은 지금이라도 있다. 완벽한 시스템을 우리 민족이 세계에 첫 선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.

그 소수의 몽골 민족이 전 세계를 정복하듯이 우리 민족도 세계에 깊은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. 다만 몇 백년 동안 세계를 지배 하고서도 지금은 미약한 존재가 돼버린 몽골민족 보다는, 영원한 문화와 이념의 유산을 인류에게 남긴 헬라 문화처럼 깊은 이념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

더 값어치 있 다고 본다.

약 220 년 전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처럼 큰 꿈과 목적이 있어, **크게
그리고 멀리 보는 안목이 있다면 우리의 한 민 족이 새로운 시대의 정신과
이념을 끌고 가는 선두 주자가 될 것이다** . 이미 그 가능성을 드러내고
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.